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1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레치워스 주립공원에서 혁신 자폐증 자연 트레일 개장 발표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겪는 지역사회 및 가족을 위한 미국 최초의 트레일*

*민간 투자 33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서부의 레치워스 주립공원(Letchworth State Park)에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를 비롯한 기타 발달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감각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자연 트레일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자금 투자를 통해 33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은 이번 신규 자폐증 자연 트레일(Autism Nature Trail)은 1마일 규모의 하이킹 루프로 8곳의 감각 체험장이 있으며, 각 체험장은 서로 다른 감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야외 활동을 통해 자폐증 장애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야외활동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공공 트레일을 건설하는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립공원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외된 지역사회 주민들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폐증 자연 트레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은 감각 인식 및 통합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체험장에서 자연 환경 및 기술 학습을 위한 천연 도구를 가지고 감각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은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통을 염두하고 설계되었습니다.

감각 체험장을 비롯한 자폐증 자연 트레일의 자세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각 체험장(Sensory Station)에서 나뭇잎, 이끼, 화석, 동물의 털, 아콘 등 다양한 물체를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 선샤인 슬로프(Sunshine Slope)는 전망대 한 곳, 커들 스윙 세 개, "혼자있기 존(Alone Zone)"이 마련되어 있는 간단한 미로입니다.
- 뮤직 서클(Music Circle)에서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창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큐리오시티 코너(Curiosity Corner)는 미끄럼틀, 개미 모양 볼더, 트레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있는 개방형 공간입니다.
- 리플렉션 놀(Reflection Knoll)은 나무로 만들어진 캐노피는 물론 바위 밑에 숨겨진 우드랜드 에칭이 마련된 트레일 중간 지점의 조용한 장소입니다.
- 메도우 런 앤 클라임(Meadow Run and Climb)은 뛰고 점프하고 밸런스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구불구불한 길과 장애물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디자인 존(Design Zone)에서 방문객들은 다양한 패턴과 구조물이 마련된 트레일에서 다양한 재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풀 패스(Playful Path)는 거친 자갈길, 통나무 라운드, 모래 등 다양한 표면으로 구성된 꼬인 길입니다.
- 더 녹(The Nook)은 천연 캐노피 아래에 좌석이 마련된 공간입니다.
- 더 셀레브레이션 스테이션(The Celebration Station)은 트레일의 마지막 지점으로, 방문객이 트레일에 대한 감상을 남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규정을 준수하여 만들어진 이번 트레일은 주차, 화장실, 와이파이 등을 갖춘 공원의 험프리 자연센터(Humphrey Nature Center)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Temple Grandin 박사의 노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사는 낙농업 전문가로 2세가 되던 1950년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자폐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트레일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래밍은 인근 와이오밍 카운티 페리 센트럴 교육구(Perry Central School District) 및 로체스터의 캠프 퍼즐 피스(Camp Puzzle Peace)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캠프 퍼즐 비스는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한 애디론덱 여름 캠프입니다. 트레일에 대한 모금은 주립공원을 위해 [자연 유산 신탁\(Natural Heritage Trust\)](#)이 진행했습니다. 신탁은 비영리 자선기업으로 선물,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공원, 레크리에이션, 문화, 토지 및 수자원 보존, 역사 보존 목적의 공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난 달, 자폐증 자연 트레일 지지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지지했던 Susan Herrnstein 앤트(ANT) 공동 창립자를 잃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추모의 의미를 담은 모든 기부금을 자연 유산 신탁을 통해 자폐증 자연 트레일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금은 자폐증 자연 트레일의 방문객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650건 이상의 개별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개인 기부가 430건 이상, 기업 기부 50건, 지역사회 단체 기부 25건, 단체가 15건 등입니다.

**Erik Kulleseid**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혁신 프로젝트를 구상 및 실현한 민관 파트너십은 협력과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주립공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리의 헌신적인 스태프 및 파트너들의 노력을 소중하게 여기며, 수많은 기부자들의 자금 지원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Loren Penman** 자폐증 자연 트레일 공동 창립자 겸 제네시 지역 공원 위원회(Genesee Regional Park Commission)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폐증 자연 트레일이 좋은 선례가 되어 자연에서 최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인 7년간의 경험을 반영하여 다른 프로젝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공 장소를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다른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접근 가능한 장소를 만들고 대중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Gail Servanti** 자폐증 자연 트레일 공동 창립자 겸 제네시 지역 공원 위원회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폐증 자연 트레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 및 가족들이 그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긍정적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en Hackett** 캠프 퍼즐 피스 최고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퍼즐 피스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모든 가족이 의미 있게 야외활동의 기쁨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와 협력하여 자폐증 자연 트레일에서 다양한 모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의 목표를 확대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aryl McLaughlin** 페리 교육구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눈이 이 프로젝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개인,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폐증 자연 트레일은 최첨단 학습 및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 공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의 아동 54명 중 1명이 자폐증 스펙트럼 질병(autism spectrum disorder, ASD) 진단을 받습니다. ASD는 모든 인종, 민족, 사회경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부모, 형제,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디지털 활동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고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ASD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호자 및 전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야외 활동에서 가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폐증 자연 트레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autismnaturetrail.com/>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레치워스 주립공원에는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며, 총 면적은 14,000 에이커 이상입니다. 2015년 미국 동부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독자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공원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제네시 리버(Genesee River)는 절벽 사이의 최고 높이 600

피트에 이르는 세 개의 주요 폭포를 통해 협곡을 통해 쏟아집니다. 공원에는 승마, 자전거, 스노모빌 및 크로스컨트리 스키도 즐길 수 있는 66마일 규모의 하이킹 트레일이 있습니다. 레치워스 주립공원은 자연, 역사,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이드 산책, 투어, 여름 강좌 시리즈, 화이트워터 래프팅, 카약, 수영장, 열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0년에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 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ks.ny.gov](http://www.parks.n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로 [뉴욕 주립공원 탐색\(NY State Parks Explorer\)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518.474.04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